

[2024년 질병관리청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 미래 팬데믹 대응의 방파제,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올해 상반기 첫 삽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1월 입찰공고, 상반기 착공 및 '26년 완공 예정
- 평시 감염병 진단·실험, 위기 시 신속한 신종감염병 진단 및 중환자 중점 치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1월 11일부터 진행하여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입찰공고) '24년 1월 11일(목)~2월 22일(목), 43일간, 조달청 나라장터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규모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대응을 위해 지정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중앙(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이 5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감염병병원)

##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개요 >

권역 구분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의료기관명	조선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양산부산 대학교병원	칠곡경북 대학교병원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지정 시기	2017. 8.	2020. 7.	2020. 7.	2021. 7.	2022. 4.
추진 단계	입찰단계	설계단계	설계단계	설계단계	기본계획 수립
완공 예정	2026. 10.	2028. 2.	2027. 6.	2028. 2.	2030. 8.

\* 완공 시기는 총사업비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공모를 통해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지정('17년 8월)되었고 금번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총사업비 781억원(국비 582, 병원 자부담 199)을 투입하여, 연면적 13,202㎡(약 4,000평), 지상 7층, 지하 2층, 총 98병상(음압병상 36개) 규모로 감염병 유행시 감염 차단을 위한 독립건물로 지어지며, '26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설(CT촬영실, 검사실), 감염병 중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시설(음압수술실, 음압병실)과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실 등이 설치되고, 치명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험이 가능한 BL\*3(생물안전실험실)도 구축된다.

\* BL : Biosafety Level(생물안전등급)

호남권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사례로, '17년부터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다만,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단계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었다.

\* 총사업비 절차 : 기본-중간-실시설계 단계별 사업 규모 등(기재부, 조달청, KDI 등) 검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 등으로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후 관계기관(질병관리청, 조달청, 광주광역시)과 조선대학교병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종감염병 위기 시에는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고,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권역 내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평상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와 권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이전부터 감염병 의료대응체계를 조기 정립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권역 질병대응센터)과 5개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각 시·도가 참여하여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23년 4월~)하였고, '24년에 동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 위기 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권역 내 의료자원(병상, 인력, 장비 등) 역량 공동활용,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등 권역 특성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수립

\*\* 중앙감염병병원 참여, 사업규모 확대(2.5억원→12.5억원), 권역별 특성화 사업 추진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래 팬데믹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하루 100만명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상시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5개 권역 외 신규 2개(수도권Ⅱ, 제주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개요  
 2.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개요(안)  
 3.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개요

담당 부서 <총괄>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지영	(043-719-7810)
		담당자	사무관	장윤석	(043-719-7811)
			사무관	황민하	(043-719-7816)
담당 부서 <협조>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유정희	(062-221-4120)
		담당자	사무관	조아림	(062-221-4134)
담당 부서 <협조>	조달청 시설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종열	(042-724-7334)
		담당자	주무관	박주용	(042-724-7342)
담당 부서 <협조>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	책임자	과 장	송혜자	(062-613-3310)
		담당자	사무관	장미선	(062-613-1180)
담당 부서 <협조>	조선대학교병원	책임자	팀 장	서 훈	(062-220-3732)
		담당자	팀 원	이계혁	(062-220-3730)
			건축파트장	정동열	(062-220-3394)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신종감염병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감염병동 구축·운영하기 위함
- (지원내용) 음압병상 36개(일반30, 중환자6) 및 음압수술실(2)을 포함한 감염병동 구축 및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지원
  - \* 진료 외 지원시설(행정부, 서비스부, 편의시설)은 병원 자부담
- (지원조건)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100%)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2 및 영 제1조의4, [별표 1의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7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 **주요 역할**

- (진료·검사)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등
- (교육·훈련) 권역내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 (환자의뢰·회송)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등의 조정

□ **목표 및 지정 현황**

- (설치목표) 수도권(2개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을 포함한 6개 권역 대상, 7개 의료기관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 (지정현황) 5개 권역 5개소 지정 및 설계 진행 중
  - \* (구축 단계) 지정고시 개정 → 기본·중간·실시설계 → 감염병동 구축공사 → 완공
- (지정방법) 정책연구용역('15-'16) 및 권역선정위원회 결과에 근거하여 인구·면적,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 설정

**개요**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30-1번지 외 일대(조선대학교병원 부지 내)
-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13,202㎡), 독립 건물 형태
- 시설 : 98병상(음압격리병상 36병상 포함), 진료시설(CT촬영실, 검사실(BL3 포함), 음압수술실 등) 및 지원시설(폐기물 처리실, 교육훈련실, 소독실 등) 등
- 시기 : (지정) 2017년 8월 (완공) 2026년 10월 예정



**< 조감도 >**



**< 단면도 >**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중앙집권형 감염병 의료대응의 한계\*에 따라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속·효율적 의료대응체계 구축

\* 위기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권역 내 의료자원(병상, 인력, 장비 등) 역량 공동활용,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 필요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관계부처합동, '23.5.) >

- (권역완결형 대응) 위기 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역량 공동 활용 등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별 대응체계 마련

- (사업내용)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으로 질병대응센터,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 권역 특성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수립·운영

\* (23년) 시범사업을 통해 각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자원조사, 모의훈련 등을 통해 상시 의료대응체계 기반 마련 → (24년) 권역별 특성화 사업과제 발굴 등 고도화 추진

- (협의체 운영) 병상 확보·조정 계획, 환자 의뢰·이송체계 수립 등 권역 특성에 적합한 신종감염병 공동 의료 대응방안 수립
- (의료 자원) 권역 내 감염병 대응 병상(음압 등), 의료인력(전문의 등), 장비(ECMO, CRRT 등) 현황 파악을 통한 위기시 자원 활용계획 수립
- (교육훈련) 권역 내 감염병 관리기관 의료인력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 체계 확립 및 모의 훈련 실시 등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질병대응센터 현황>**

권역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년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2.4)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20.7)	조선대학교 병원 ('17.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1.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7)

**□ 기대 효과**

- 권역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